

現物市場의 구조와 기능

- 로테르담 現物市場을 중심으로 -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

석유의 現物市場은 석유산업의 주변에서 장기간 존속해 왔으나, 이 시장은 많은 경제적·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제도화되었으며, 그 형태는 주로 이들 요인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통 세계석유무역량의 일부(장기계약량의 약 20~30%)에 지나지 않지만, 現物市場의 존재는 세계 석유 시장구조의 큰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물시장의 경제적 기능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현물시장의 중기적 역할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정상적인 형태의 現物市場은 잉여량과 부족량의 최종 균형이 이루어지는 공급과 수요 사이의 均衡市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급이 여유가 있을 때는 現物市場의 가격은 정상가격(mainstream prices) 보다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급이 딸릴 때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현물시장의 가격은 다른 상품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요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된다. 「로테르담 現物市場」이라고 할 경우, 그것은 일반 시장이 아니며, 로테르담에 있지도 않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팔고 사는 제례적 의미에서의 시장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임대사무실, 金融지원, 전화와 텔레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사하는 무역활동은 있다. 그러나 그 위치는 로테르담, 런던, 파리, 미라노, 함부르크 그리고 南部獨逸사이 어디라도 될 수 있다. 「로테르담」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두개의 성질이 다른 그러나 관련이 있는 무역형태를 가리킨다.

① 위에 열거한 거래센터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카고(cargo)거래

② 주로 로테르담에 있는 바지(barge)거래센터, 그리고 ARA(Antwerp-Rotterdam-Amsterdam) 지역으로부터 라인江상류의 獨逸, 스위스, 벨기에, 때로는 프랑스로의 거래

뉴욕, 카리브海, 또는 싱가포르와 같은 정유공장 터미널지역이 현물거래의 센터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물거래활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역시 로테르담 시장이다. 로테르담시장의 발달은 2次大戰 이후 유럽정유산업의 성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석유회사들은 정유공장건설계획에 착수했다. 그 계획은 中東이나 카리브海의 정제센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국내정제에 중점을 두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국내정유공장건설계획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었다.

① 제품보다 원유를 도입함으로써 대형탱커를 이용할 수가 있고 따라서 수송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戰後의 외환부족으로 인해 제품수입을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원유를 도입, 국내에서 정제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③ 마지막으로 소비중심지부근에 정유공장을 건설함으로써, 그 공장의 설계를 수요구조에 맞출 수 있다.

戰後경제가 호황을 맞게 됨에 따라 유럽의 정제 능력은 1948년 3백만b/d 이하에서 1972년 35백만 b/d 이상으로 급증했다. 1939년 세계원유의 70%

〈表 - 1〉 로테르담 7 國의 純수입량

(單位 : 千톤)

국 명	휘 발 유	나 프 타	경유 / 가스오일	B - C 유	계
벨 기 에	(- 2,032)	(- 616)	(- 2,214)	(- 3,823)	(- 8,685)
덴 마 크 국내소비비중 (%)	310 18.5	227 73.9	3,059 39.1	4,738 76.6	8,334 57.9
西 獨 국내소비비중 (%)	3,651 16.3	3,232 45.7	19,800 33.5	2,641 11.9	29,324 26.5
네 덜 란 드 국내소비비중 (%)	(- 2,666) -	640 12.1	(- 9,337) -	(- 7,826) -	(-19,189) -
스 웨 덴 국내소비비중 (%)	1,049 28.7	26 23.2	4,641 51.1	7,317 64.6	13,033 53.9
스 위 스 국내소비비중 (%)	1,767 68.4	71 71.0	5,548 77.6	696 41.1	8,082 70.1
計 국내소비비중 (%)	2,079 5.6	3,126 21.7	21,497 22.1	3,743 7.6	30,445 15.3

가 生産地에서 정제됐으나, 이 비중은 1950년 50%로 떨어지고, 1973년에는 10% 미만으로 감소했다. 이와 같이 계속 성장해 온 西歐시장근처로 정유공장이 집중됨에 따라 석유제품의 현물시장이 발달하게 되었다. 「로테르담시장 7개국」(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西獨, 스위스 및 스웨덴)의 수입량은 〈表 - 1〉에 나타나 있다.

석유제품의 거래는 1950년대에 발전하기 시작했다. 석유생산에는 경험이 없으나, 해운과 석탄산업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이 제품시장 특히 가스오일 시장에 참여했다. 석유거래는 초기에는 라인江 상류의 西獨에서 하류에 있는 국가로 공급되었으나, 이탈리아의 독립계 정유공장들과 네덜란드(로테르담)의 주요정유회사들이 西獨의 수요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을 개시함에 따라 거래는 곧 라인江 상류로 확대되었다. 특히 가스오일시장은 〈表 -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西獨의 대규모 시장덕분에 발전하게 되었다. 라인江의 바지船은 運河를 통해 바바리아와 스위스, 더 멀리 바젤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이 시장의 대부분은 자체의 정유공장을 갖지 않고 제품을 수입해 오는 독립계 판매회사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전통적으로 많은 독립계 무역업자들에 의해 지배되어 온 西獨시장에

〈表 - 2〉 西獨의 석유시장 구조(1979년 현재)

(單位 : %)

	휘발유	경 유	가스오일	중 유
공 급	100	100	100	100
국 내 정 제 수 입	70	85	58	87
	30	15	42	13
도 매	100	100	100	100
종합석유회사	89	91	72	83
독립계 회사	11	9	28	17
소 매	100	100	100	100
종합석유회사	75	80	70	83
독립계 회사	25	20	30	17

가스오일을 대량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초의 가스오일현물시장이 발달하게 되었다.

로테르담시장의 현물거래는 실제 두가지의 형태가 있다. 하나는 바지거래로 ARA 항구에서 라인江 상류의 西獨, 프랑스, 스위스로 거래되는 것이다. 석유제품의 바지거래는 유럽의 국내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로테르담근처에 메이저들이 건설한 정유공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으며, 바지船의 선복량증가와 저장탱크의 확충으로 더욱 축

진되었다. 1960년대 초에는 라인江 바지船거래를 위해 고시되는 현물가격이 가격지표로서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소비국과 산유국 모두 메이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공급물량의 취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 현물고시가격은 확대되어 대형유조선의 카고(cargo)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조선 수송 석유(cargo)의 거래는 주로 런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세계 항구 사이의 국제적인 거래를 포함한다.

현재 로테르담 가격과 연동된 현물제품은 여러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3大공급지역은 다음과 같다.

① 地中海 연안의 수출용 정유공장과 일부 카리브海연안의 정유공장

② ARA지역, 프랑스, 英國(최근 중요한 공급원이 되었다)의 주요 정유공장

③ 소련과 東歐지역

④ 이외에 경우에 따라 수에즈以東 국가로부터도 공급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페르시灣의 산유국 정유공장에서부터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테르담 現物市場을 이용하는 구매자와 판매자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바뀌고 있다. 1960년대 중반에서 1974년 기간에는 로테르담 바지船거래의 신규참여업자가 크게 늘었다. 이들 신규거래업자의 대부분은 독립계였다. OPEC이 가격결정의 통제력을 회복하기 전에는 메이저들이 대부분의 上流部門 이익을 독점했다. 대체적으로 제품과 원유가격은 메이저들에 의해 결정되고, 현물시장의 거래는 석유산업의 가격구조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뿐이었다. 현물시장은 주로 단기거래시장이며, 석유산업의 특징인 장기 정찰가격계약을 반영했다. 메이저들은 대부분 독립계 거래업자들이 현물거래를 권장하도록 방치했으며, 때로는 제품의 잉여물량을 현물시장으로 방출은 했으나, 구매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原油의 현물거래 역시 1970년대에 증대하였으나, 로테르담 現物市場은 주로 석유제품의 거래가 주류를 이루었다. 정유산업의 자본집약적인 성격 때문에, 정유회사들은 단기적인 현물구매에 의존하기보다는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의 공급을 확보하려고 했다. 따라서, 원유는 전통적으로 로테

르담시장의 세어가 작다(15~25%).

그러나 1973-74년 OPEC(石油輸出國機構)의 가격조정 이후 석유산업의 이익센터는 下流部門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대규모 석유회사들이 현물시장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장기 계약가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현물시장가격과 연동되기 시작하면서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1973-74년 가격인상 이후 소비감소로 야기된 잉여정제능력의 발생과 제품공급원으로서 현물시장의 성장은 강력한 공급규제와 메이저들이 정한 가격구조를 종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비록 세계석유의 대부분이 계속 메이저들에 의해 판매되고 있지만, 독립계 석유회사와 국영석유회사를 통해 판매되는 물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메이저들은 때때로 정유공장투입량을 확보하고 또 공급계약물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물시장에서 원유를 구입해야 할 경우도 있다. 현재 종합석유회사들은 로테르담 현물시장에서 파는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구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메이저들은 현물시장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바꾸었으며, 일부 회사는 로테르담 시장의 새로운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래회사를 설립했다.

地中海 현물시장(이탈리아 현물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은 北아프리카 원유를 처리하기 위해 시실리와 사르디니아에 정유공장이 건설되고 리비아와 알제리에서 활동하는 독립계 석유회사들이 戰後에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성장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純석유수입국인 이탈리아는 수에즈運河와 北아프리카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과 제품수요의 증가라는 두가지 혜택을 받았다.

ENI社가 추진해온 독자적인 정책의 결과로, 그리고 이탈리아의 메이저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地中海연안 정유공장에서 처리된 원유의 대부분은 정유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독립계 석유회사들에 의해 공급되었다. 독립계 회사들은 원유를 공급하고 또 정유공장들이 일부 정제대금으로 받는 제품을 제외한 최종제품을 판매했다. 석유제품은 트리스트로 해상운송되고 그곳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北으로 바바리아로 수송되거나 또는 北西유럽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브랄탈을 경유 해상운송되었다. 특히 이탈리아의 정유공장들은 B-C油의 주요 공급원이었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이탈리

아는 北西유럽의 주요 제품공급원이 되었으며 또 그 당시 로테르담과 같이 가격결정센터가 되었다.

地中海지역의 정제능력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초창기 석유제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설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세계정유산업이 정제능력과잉상태로 전락하게 됨에 따라 단순하고 시설이 고도화되지 않은 이탈리아의 정유공장들은 일부 시장을 상실하였다. 이외에, 수에즈運河의 사용중단과 초대형 유조선에 의한 원유수송대체로 인하여 地中海연안 정유공장의 지리적 잇점은 감소되었다. 이러한 잇점은 北海석유와 천연가스과 中東과 아프리카産 수입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감소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 해서, 현재 地中海 현물시장은 한계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北아프리카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다는 이탈리아 시장의 위치 때문에, 地中海 현물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로테

르담 가격보다 낮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지리적인 것 이상의 것이 작용하고 있다. 비록 地中海 시장가격이 이론적으로는 운임이 더 싼 北西유럽 가격과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 약간 더 낮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地中海 현물시장은 규모가 큰 로테르담 시장의 그늘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시장은 전통적인 가격결정의 기능은 약하고, 이보다는 주요한 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을 주로 하고 있다. 中東의 大산유국과 인접해 있다는 편리한 지리적 위치와 방대한 시설능력으로 인해 이 시장은 유럽의 석유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존속할 것이다. 地中海 시장의 중요성은 세계 최대인 이란의 아바단 정유공장이 파괴된 후 이탈리아의 정제센터들이 부족물량을 공급하게 된 1980년 하반기에 여실히 입증되었다.

現物市場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



해 「均衡石油市場」에 관해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균형시장」이라는 말은 원유확보량(curde availability)이 정유공장의 소요량을 충족시키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것은 과거 메이저들이 석유시장을 지배하던 시기의 석유시장이었다.

메이저들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것은 원유생산, 수송, 정제 및 판매가 회사별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메이저들이 장기계약과 교환을 통하여 원유의 수급불균형을 처리하는 복잡한 방법을 고안한 것은 석유업계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상식이다. 아무리 잘된 시스템이라도 정제계획이 완전히 시장과 균형을 이루도록 할 수는 없다. 일부제품의 과부족은 불가피하며, 잉여제품은 부족시를 대비해서 비축하거나 판매하여야 하며, 부족분은 제품을 구입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장에서 모든 석유회사들은 자체의 공급 시스템내에 단계적인 수급균형 기준을 갖고 있다. 광의로 볼 때 :

① 각 회사는 자체 정제시스템의 한계내에서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것이다.

② 이 방법이 부적당할 경우, 각 회사는 다른 정유공장에 의존할 것이다. 사실상, 종합석유회사의 공급부서들은 항시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공급과 수요의 확대시스템이 주는 탄력성은 한 회사내의 가능성보다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의 다양성도 늘어나며, 원유와 마찬가지로 메이저간 제품수급조정 대부분은 실제 제품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교환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 교환거래는 매우 복잡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기 까지는 많은 경로를 거치게 된다.

③ 나머지 소요량이나 확보량은 정유회사가 직접 거래업자와 또는 브로커를 통하여 팔거나 교환함으로써 독립된시장(independent market)에 내 보내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現物市場의 주요 경제적 기능은 공급시스템과 시장간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업자와 석유회사와의 관계는 이러한 기능이 암시하는 것보다 더 긴밀하고 복잡하다. 예를 들어 석유회사들은 現物市場에 대해 각기 다른 정책을 갖고 있다. 이들 정책은 Texaco와 같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룹과 Petrofina와 같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

룹, 즉 양극으로 나누어진다. 前者에는 Exxon과 같은 메이저들이 포함되며, 이들 정책은 필요시나 경제성이 있을 경우 구매를 하며 판매는 거의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해 할 때가 있다. 後者에는 BP와 KPC 등이 포함되며, 그들은 독립계 거래업자들을 그들의 시장일부로 취급하고 있으며 또한 잇가로 그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現物市場은 한계자유시장은 아니다. 대규모 거래업자들은 어느 정도의 공급량을 확보하고 있어, 정유공장과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거래업자가 대응수요를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폐쇄적」인지도 모르나, 대체로 「개방적」이며, 거래나 교환을 위한 기반으로 이용되고 있다.

더우기 전체적인 제품공급원은 메이저들을 위한 수급균형역할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확고한 기반을 거래업자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어느 자료에 의하면 메이저들이 現物市場의 공급물량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물량은 地中海와 카리브해의 민간수출용 정유공장, 中東, 西歐 및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에서 공급되고 있다. 이 밖에 가격이 상승할 때는 멀리 日本으로부터 공급될 때도 있다.

거래업자의 역할을 요약해 보면, 그들은 극히 일부의 위탁정제를 제외하고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요시장을 창출하지는 않으면서 두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를 한다. 그들은 석유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추가된 종합시스템에서 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보다 신속하고 유연성 있게 움직이며, 따라서 어떤 점에서는 일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특성은 대규모 회사에는 맞지 않는다. 그들은 석유산업의 주요구조 밖에서 최대의 능률을 기할 수 있는 일부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에 대한 조직적인 방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실상 現物市場은 投売(distress sale)의 결과이다. 정유회사들은 그들의 원유를 제품으로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그들의 시장과 균형을 유지한다. 제품은 다른 처리방법이 없을 때 카고시장(cargo market)으로 팔린다. 저장탱크를 청소하기 위해서 또는 저장탱크가 없는 제품을 처분하기 위해 정유회사들은 싼 가격으로라도 그 제품을 팔 것이다. 왜냐하면 싸게 팔아서 생기는 손해가 정유공장의 가동을 낮춤으로써 받는 손실보다 훨씬 적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만약 한 회사가 특정제품의 공급이 딸린다면, 그 회사는 출혈구매자(distress buyer)로서 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비싼 가격으로라도 구입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 형태의 공급자는 수출용 정유회사들이며, 이들은 제품가격이 여러가지 원가비용을 상회하게 될 때 원유처리를 재개함으로써 시장에 뛰어들다. 세번째 공급그룹은 경제체제가 다른 주로 東歐국가들이며, 이들의 제품생산은 경쟁국들과 공통의 원가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환경은 메이저들이 그들의 주시장에서 활동하는 여건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 견해는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도 모르나, 이와 조금이라도 유사한 주장이 성립될 수는 없다. 첫째한 정유회사가 생산제품을 손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판매했다면 그 회사는 파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가장 전문화된 특수제품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장에는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있기 때문에 판매자는 최저가격으로 파는 일이 거의 없고 구매자도 최고가격으로 구입하는 일이 거의 없으며, 매매는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가격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출혈매물(distress cargo)이 가끔 등장하여 구매자가 없는 NWE지역에 접근하며 가격은 그래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 출혈매물의 가격은 저장시설을 소유하고 출하기회를 엿보는 구매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수준까지 하락한다. 시장에는 여러명의 잠재고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응찰하지 못하도록 하기는 하지만 응찰자가 없어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는 없다. 구매자가 지불하는 현물가격과 단기시장과의 관계는 유조선 시장에서 현물과 장기용선과의 관계와 유사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격균형이 이루어지는 安定期에는 현물가격이 잉여제품의 원가수준에서 변동할 것이다. 만일 가격이 너무 상승하면, 새로운 공급량이 신속히 시장에 투입될 것이다. 가격이 하락하면, 정유회사들은 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따라서 공장가동을 조정할 것이며, 출혈매물이 나올 경우 거래업자는 가격차액이 시장에 다시 출하할 때까지의 저장비용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 물량을 구입할 것이다.

수급불균형

이러한 균형유지효과는 가격불안정상태 또는 시장의 수급균형에 큰 변동이 있을 때는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2종의 불균형에 처해 있는 현재의 시장상황이다. 즉 수요감소로 인한 정제능력의 과잉과, 정제능력과 수요구조의 불균형이다.

정제능력과 수요구조의 불균형에 대해 좀 더 논의해 보면, 세계 제품수요는 輕質化되고 있으며 이것이 B-C油 수요의 감소로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세계확인매장량의 86% 이상이 처리하기가 더 힘든 重質원유이다. 輕質원유의 粘度와 다른 下溶部門산업의 수반가스 수요로 인해 산유국들은 비중이 낮아 처리하기 쉬운 경질원유에 대한 정유회사들의 선호를 충족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정제능력의 과잉과 함께 상기 요인들은 정유산업의 구조변화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다음과 같다.

- ① 세계 상압정제시설의 일부 폐기
- ② OPEC회원국들의 고도화 정제시설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립추진

세계 고도화 정제시설의 건설은 제품수요패턴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정유공장의 연료비를 절감시킨다. 연료비는 정제비용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고도화시설의 건설은 또한 원유공급의 안정성 때문에 공장가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서 세계 원유공급구조는 重質化하게 되었다. 원유가치의 패턴은 정유센터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重質원유는 모든 現物市場에서 비교적 거래가 잘 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84년 11월의 경우 아라비안 重質원유는 로테르담 현물시장에서 공식가격으로는 아라비안 輕質원유보다 배럴당 3달러의 가격차가 있는데 반해 정유회사들에게는 약 0.86달러밖에 싸지 않았다.

現物價格

소위 「로테르담 현물가격」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현물시장의 가격행태는 3 단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실제 거래단계이다. 이 거래가 완결되는 가격은 「로테르담 가격」이다. 관련회사들은 그들 자신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고 시장의 소문을 통해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어느 시장에서나 뉴스보도는 정보를 수집, 널리 보급하기 위해 발간되는 것이 자연적인 추세이다. 로테르담의 경우, 가장 많이 읽히고 활용되는 보도자료는 매일 발행되는 「Platt's Oilgram Price Service」이다.

이 외에 격주간지인 「Petroleum Argus」, 美國의 주간지인 「Oil Buyers Guide」가 있고 PIW도 월간 현물가격 추이를 싣고 있다.

이러한 모든 자료들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장 정보수집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집된 정보는 종합적인 것은 아니며, 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물시장은 아직도 객관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는 가격구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격리포트에 나와 있는 가격은 직접적인

관련회사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만, 엄밀히 말해서 시장의 기능에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로 이 시장의 특성때문에 가격결정의 압력은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구조적(organizational)이고 심리적인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물시장은 석유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제도화된 것이다. 현물시장이 1950년대 이후 인정을 받아 온 유통채널이기는 하지만, 현재 시장의 공급과잉덕분에 거래물량이 세계 총거래량의 10% 정도에서 최근 40%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서 현물시장의 장래전망은 주로 원유의 공급과잉이나 공급부족에 달려 있다. ◆

(OPEC Bulletin 1985. 10)

□ 產油國短信 □

사우디의 經常收支赤字 減少 전망

OPEC產 석유수요가 감소한 이후부터 사우디 경제는 흑심한 타격을 받아 왔다. 이러한 여파로 사우디의 1985년 석유수출량은 4년전보다 6백만 b/d나 적은 2.5백만b/d에 불과하며, 1982회계년도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경상수지적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근착 MEED誌(86/1/18)는 1986년의 사우디 경제를 조명하면서 상품수입의 감소와 함께 경상수지 적자폭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음은 MEED誌의 전망을 요약한 것이다.

IEA는 금년 自由世界 석유수요가 45.7백만b/d로 지난해의 45.6백만b/d보다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OPEC이나 사우디에 얼마나 혜택을 가져다 줄지는 불확실하다. 지난해 OPEC原油生産量은 16.1백만b/d였으며, 최근의 시장여건으로 볼 때 금년의 산유량은 16.0~18.0백만b/d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사우디의 시장 몫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나라의 政策에 좌우된다. 우선 사우디는 여타 OPEC 회원국과 상의없이 단독으로 산유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비OPEC과는 물론 OPEC회원국 내부에서도 油價인하경쟁이 발생하여 油價는 20달러 이하로 폭락할 수 있다. 그러나 사

우디는 이러한 단독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여타 회원국과 협력하면서 原油價格을 시장가격에 접근시켜 수출을 늘리는 보다 신중한 정책을 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따라서 OPEC의 사우디의 產油量 증대를 허용하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피한다면, 1986年 OPEC 產油量은 지난해와 큰 차는 없을 것이며 사우디產油量은 3.4백만b/d 수준이 될 것이다.

석유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사우디의 전체 상품수출은 1984년의 370억달러에서 1985년에는 290억달러로 감소하였고, 금년에는 다시 270억달러로 감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면 수출이 300억달러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상품수입의 경우는 정부의 수입 감소정책에 따라 수출감소폭 이상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적자폭은 1985年の 20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줄어든 전망이다.

당초 85/86회계년도의 목표인 균형예산은 최근의 수출부진으로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건축제정이 계속될 것이며, 정부수입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적자폭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